

대만의 탈중국화(去中國化) 추세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광수(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I. 서론

대만과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개의 정치체제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장기간의 분단 상황과 그에 따른 단절로 인해 각자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중국은 1980년대 이래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국력의 상승을 가져왔고, 대만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써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면서 한국과 북한이 각각 주권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만은 중국의 확고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주권 국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채 외교적 고립국면에 처해 있다. 양안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대만은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분단과 단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대만사람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기 보다는 대만인으로서 인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대만화’ 또는 ‘탈중국화’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인으로서 자각하자는 대만주체성, 대만을 이주대상지가 아닌 본토로 삼자는 본토화운동, 중국이라는 명칭 대신에 대만을 사용하자는 정명운동,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의식하자는 대만인정체성 논쟁 등은 거대 중국의 중화민족 다원일체론, 하나의 중국으로서의 통일정책에 맞서 대만인의 의식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의 장기간의 단절 과정에서 대만문화의 독자성이 자연스럽게 구축된다는 문화적 측면과 중국의 강대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별개의 주권국가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정치적 측면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대만에서 나타나고 있는 탈중국화 추세의 의미와 탈중국화 추세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최근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만정체성과 대만민족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탈중국화 추세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분단 70년을 맞이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체성 균열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 대만의 탈중국화 추세

1. 탈중국화의 의미

탈중국화는 중화문화에 영향을 받은 국가나 지역에서 중화문화를 제거하고, 현지문화를 중심으로 민족정체성, 언어 또는 문화의 일체성을 정립하려는 정치사회운동을 의미한다. 탈중국화의 의미는 한자 사용의 제한조치 이외에 중국문화에서의 자립,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문화적 독립을 지향하는 것을 포괄한다. 때문에 중화권 국가인 대만, 홍콩에서 나타나는 독립 움

1) 탈중국화(去中國化) 용어는 1996년 4월 23일 聯合報에 차이웨이(蔡瑋)의 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영어 표현은 desinicization 혹은 desinicize, desinicizing, dechinalization 등이다.

직임 내지는 자치운동의 이론적 기반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대만의 탈중국화는 중국 대륙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서 문화적 독자성과 정치적 자주성을 추구 하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2. 탈중국화 발생 배경(원인)

1) 준(準)국가라는 인식에서 출발

대만은 1949년 장제스가 대륙에서 패퇴하여 들어온 이후 대만, 팽호, 금문, 마조 네 섬을 영토로 하여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로 1971년 유엔에서 축출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2300만 대만인민과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미 국가 구성의 주요 요소인 영토와 주권, 국민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리덩후이는 양국론(兩國論)을 주장하고, 천수이볜은 일변일국론(一邊一國論)을 제기하면서 대만을 국가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적으로 탈중국화를 시도하였다.

2) 대륙의 무력위협에 대한 반발

대만인의 정체성 변화 추세를 보면 통상 외부의 커다란 자극에서 많은 부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7년에 대만정체성이 10% 이상 도약했는데, 이 때 바로 대만해협에서 미사일위기가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이때의 위기가 대만정체성이 급증하게 된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²⁾ 보통 외부로부터의 위협상황이 발생하면 외부세력에 대한 반발의식이 높아지면 내부세력의 단결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만에서 치루어지는 총통선거 전후에는 일반적으로 대만정체성 비율이 높아지는 경우를 보여준다.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서도 과거 몇 차례에 걸쳐 대륙으로부터의 무력위협이 있었지만 실제상황으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대만인들 사이에는 위협이 실제적 군사적 행위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른바 학습효과로 인해 오히려 탈중국화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평가이다.

3) 장기분단에 따른 세대교체와 대만화 교육

대만과 중국은 1949년 이래 분단상황에서 제한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사기억, 문화적 동질성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소속한 집단을 인식하는 것은 보통 어린 시절 혹은 청년기에 확정하며, 이후에는 오랫동안 안정되며 변하기가 쉽지 않다. 대만인구층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대만정체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중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전쟁경험을 가진 장년배는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서부터 대만에서 성장하며, 상상한 국경의 범위를 대만, 팽호, 금문, 마조로 생각하는 젊은세대는 스스로를 대만인으로 생각한다. 매년 인구가 1%정도 비율로 변한다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엄 이후, 대륙 수복의 희망을 버리는 비율이 1% 정도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1%씩 증가한다. 당연히 신세대에게는 정체성에 대한 사고도 다르다.³⁾

한편 객관적인 거주환경의 변화 이외에 본토화 운동과 대만독립운동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2) 王宏恩, 當台灣認同超過60%, 代表什麼

3) 王宏恩, 當台灣認同超過60%, 代表什麼

3. 탈중국화 추세

1) 정치적 측면: 대만은 무엇인가? - 본토화운동, 독립운동, 정명운동

대만에서 민주화가 진행된 1980년대 말부터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만의 역사, 지리, 문화, 주체의식을 강조하는 운동이 발생했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자는 운동은 한문화 혹은 중국문화를 대만문화의 일부 분으로 보는 대만본토화운동으로 불리워지고, 자연스럽게 탈중국화의 성격을 지니게 됐다.

대만은 탈중국화에 방해되는 정치적 상징을 바꾸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해 왔다. 특히 천수이볜 집권 이후 중국, 중화민국이라는 용어사용을 중지하고 ‘대만’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① 총통부 외벽의 ‘삼민주의 통일중국’ 표어, 해당화 안의 중화민국 문양 제거, 총통부 광장 양쪽의 통일중국, 중화부흥 표어도 제거, ② 해외 대표부 명칭에 대만 용어 사용 ③ 민간단체 대만 용어 사용 권장 ④ 도로, 지방 명칭에 개조 ⑤ 동상 철거, 교가 개사 즉 장제스, 장징궈 동상 철거와 중국수복내용 포함된 교가 개사 ⑥ 대만은행을 중앙은행으로 개명, 장제스 그림을 지우고 신지폐 발행 ⑦ 성립대학 명칭 앞에 일률적으로 ‘국립’으로 붙여 대만은 중국의 하나의 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국가임을 명시하였다.

2) 문화적 측면: 나는 누구인가? - 대만 주체성, 대만의식, 정체성, 대만 민족주의

(1) 교과서 개정

(2) 대만독립의식이 주된 역사 교재 <認識臺灣>를 통한 교육

(3) 새로운 국민, 새로운 국가 이념을 불어넣는 초중등교육

(4) <중국문화기본교재>과정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변형

(5) 본토화교육 추진하고, 중국어문 배척 분위기: 초중등 과정에서 ‘향토언어’과목을 신설하여, 민남어(대만어), 객가어, 원주민언어 중 하나를 필수 선택하도록 하여, 국어(한어)의 위상을 약화시킴.

(6) 중문병음을 버리고, ‘통용병음’ 사용

(7) 대만문학학과 설립

Ⅲ. 대만 정체성과 대만 민족주의

장이화는 정체성을 “‘나는 누구인가(我是誰)?’, ‘나는 무엇인가(我是什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⁴⁾ 대만정체성의 부각은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본토화운동, 대만주체성 논의 등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1. 대만정체성

1) 대만정체성 연구 성과

정치학자들은 대만에 대해서 대체로 1970년대는 경제발전의 성과와 국민당정부의 강국(strong state) 역할에 주목하고, 1980년대 말기부터 일부에서 대만이 권위주의체제에서 어

4) 江宜樺, 《自由主義、民族主義與國家認同》, 台北, 楊智出版社, 2000年4月, 頁13。

떻게 민주화를 진행시켜 자유화, 민주적 전환, 민주적 공고화를 했는가에 관심을 갖고, 1990년대 이후에 들어서 정체성정치부문에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용어로 보자면 national identity 는 곧 nation's identity이며, 민족정체성 identity of nation을 의미하며, 민족정체성이라고 할 수 수 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정체성이라고 번역한다. 사실 state identity 혹은 identity of state 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의미이다. 양자는 관련이 있으나, 각기 다른 정치학 개념이다. 의미상의 혼동으로 엄숙한 학술상의 대화를 가로막는다.

민족은 하나의 국가라는 틀 안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집단이다. 현재 대만인의 민족정체성의 혼란은, 민족자아인식의 분기점은 대만인 정체성은 대만인정체성, 중국인정체성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다.(그림1) 이외에 대만인이라는 개념에는 적어도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학로인 鶴佬/복로인, 본성인, 대만원주민 및 대만민족이 있다. 동일하게 중국인도 다른 해석을 지닌 명사가 있다. 혈연과 관련있는 화인, 문화상의 화인, 정치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혹은 중화민국(대만에 거주하는)국민 등이 있다. 당연히 구축과정에 있는 중화민족/중국민족을 대표한다.

그림1) 대만인의 민족정체성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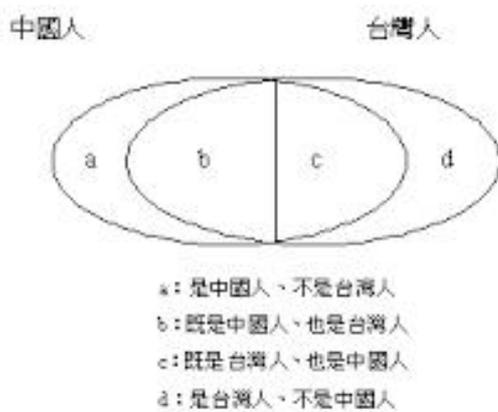


圖1: 台灣人的民族認同

국가정체성은 한 국가의 자아정립이며, 끊임없는 상호작용, 협상, 학습, 정의, 구축을 통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정체성 형성은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한다. 대내적으로 국가정체성은 족군(종족집단), 정당 및 이익단체의 상호영향을 받는 것 이외에 사회문화, 정치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대외적으로 국가정체성은 한 국가와 다른 나라와의 상호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곧 국가는 국제환경을 경기장으로 여겨야 하며, 정치적 시각 뿐만 아니라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되고 구축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다.

중화민국이 대만에서 고착화되는 추세에 따라, 대만의 중화민국에서 대만중화민국으로 바뀌었다. 현재 정치인들의 최대공약수가 바로 중화민국을 인정하자이다. 본래 국민당정부가 제공하는 국가정체성은 국가영토를 대평금마로 경계를 세우는 것 이외 최대한 내세운 것은 중화민

5) 施正鋒, 台灣人的民族-國家認同, 淡江大學, 200403. 에서 인용함.

국의 명칭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전쟁위협이 존재함에 따라, 만일 대만 주민의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이론이 없는 것은 현재의 중공정권/중화인민공화국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 중국이라는 중요한 타자에 대해 국가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 즉 대만인에 의 중화민국이다. (원생론=결정론, 구성론=적극적사고)

다음과 같은 도구식으로 국가정체성을 타협하면 당연히 완고한 원생론적(primordial) 민족 정체성을 받을 것이며, 역사 혹은 문화상의 중국과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수동적인 국가정체성은 대만인의 민족정체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면으로 구성론적(constructivist) 방향으로 상상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만인은 반드시 스스로 대만정체성과 중국정체성의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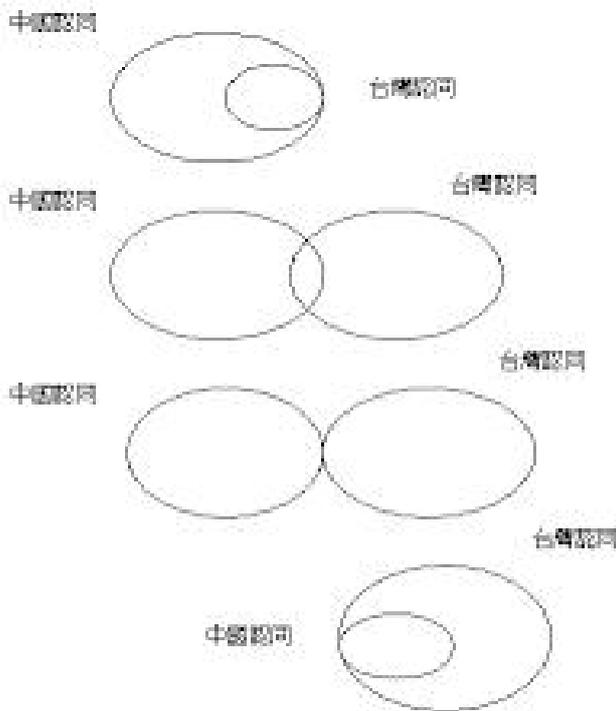


圖 2 : 台灣認同與中國認同

그림2) 대만정체성과 중국정체성의 관계⁶⁾

이론적으로 보면, 네 종류의 정체성 구성방식(그림2)에서 첫째, 상호종속은 계층식 관계이며, 중국정체성이 상위이며, 대만정체성은 하위의 개념이다. 따라서 대만정체성은 반드시 중국정체성에 귀속(臣屬)된다. 여기서 중국정체성이 바로 국가정체성이며, 대만정체성은 단지 지역적 성격을 지니며, 예속되는 정체성이다. 둘째, 상호 분리된 모델에서 대만정체성과 중국정체성에 상당한 교집합이 존재한다. 특히 역사, 언어, 문화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이는 주종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만약에 대만정체성 및 중국정체성이 모두 민족/국가정체성이라면, 향후 충성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셋째, 상호배척의 모델하에서 대만정체성과 중국정체성이 상호 병용이 힘든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현대에 들어 민족국가를 형성하려는 상황에서 정치적 개체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넷째, 상호구축 모델에서

6) 앞의 글에서 인용함.

대만정체성이 국가정체성이며, 중국정체성은 대만정체성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단편적으로 중국정체성을 대만정체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정체성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선택하는 것이며, 좀더 알맞게 개조해야한다.

한편 대만대학교 역사과 교수 리영츠(李永熾)는 1895년 청일전쟁의 결과로 대만이 일본에 병합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이후 대만정체성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함을 주장했다. 비록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대만은 청나라로부터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존재였고, 구미 열강과 일본이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천연자원에 관심을 가진 이후에야 비로서 청나라 조정이 대만에 행성을 설치하는 수동적인 정치를 하였다고 보았다. 즉 청나라시기의 대만은 식민지로 취급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만주족은 대만을 식민통치한 외부세력이며, 대만 한족은 만주족에 의한 식민통치가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간주하며, 이 조약은 대만 한족과 중국 한족이 각자 도생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족은 신해혁명을 통해 만주족의 식민통치를 벗어났으며, 스스로 만주족, 몽고족, 회족, 장족과 합쳐 오족단결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중화민족이라는 것이다. 대만의 한족은 중국과 하등의 관련없이 스스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 점차 대만의식(台灣意識)을 기초로 하는 도서국가 정체성(島國意識)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⁷⁾

2) 대만 국가정체성 연구 현황

장이화는 1998년 발표한 <현대 대만국가정체성 논술의 반성>에서 국가정체성방식의 연구를 시도했다. 대만사회의 현존하는 각종 정체성 이론을 민족주의, 자유주의, 급진주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중 민족주의 입장은 가장 자주 보이는 사상이다. 이 이론은 대체적으로 국가는 반드시 민족을 기초로 형성되며, 이 민족 혹은 단일종족, 어느 한 족군을 핵심으로 다른 소수 족군과 결합하여 동질성 혹은 동화를 기초로 형성된 사회적 실체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민족 구성 요소에는 각기 다른 이견이 있다. 따라서 대만민족주의와 중화민족주의는 모두 혈연, 문화 심지어 공동운명체 의식 등 각기 다른 각도에서 국가정체성을 주장한다.(장이화, 1988:168) 장이화는 민족주의는 국가정체성을 기초로 하는데, 이끌어낸 문제는 발휘할 수 있는 기능보다 더 많다. 주요하게는 대만의 현재 사회가 자위 욕구가 필요한 '우리집단'의식(我群意識)이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집단 의식은 민족주의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민족주의와 대만민족주의를 주체로하는 논술은 도리어 대만이 외부에 맞서 필요로 하는 우리집단 의식을 무너뜨릴 수 있다.(장이화, 1988:186)

자유주의자들의 국가정체성 관점은 국가 본연의 헌정제도와 인권보장을 국가를 인정하는 관건이라고 본다. 장이화의 분석에 의하면 자유주의 주장은 천치난의 공민국가주의(陳其南的「公民國家主義」), 차이잉원의 자유주의식 정체성 정치(蔡英文「自由主義式的認同政治」), 샤오가옌의 공동체이념(蕭高彥的「共同體理念」)이 있다. 이들은 민족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헌정제도를 민족을 대신하여 국가정당성이 존재하는 유일한 기초라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의 최대 맹점은 논증과정에서 족군과 문화요소의 작용을 낮게 평가하고, 족군문화가 근본적으로 국가정체성의 중요구성요소임을 무시하고, 자유주의의 내포하고 있는 보편주의경향도 특정국가의 정체성의 기초가 되기는 어렵다(장이화, 1998:199)

급진주의 관점은 국가를 국가정체성의 주체성의 합법성으로 삼는 것을 뒤집으려 시도한다. 이들 대부분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후기식민주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민족주의사상의 국가토템를 해제하여, 국제적 약세단체에 의한 반패권주의 연맹을 건립하고자 한다. 이러

7) 馬關條約與台灣意識的形成

한 주장의 영향력은 급진적인 사회운동세력, 지식인 등 주변부에만 있으며, 영향력도 매우 제한적이다.

2. 대만민족주의

대만민족주의는 대만 혹은 대만인의 문화, 역사, 지리, 정치 등 사회 각종 측면의 사상체계이며, 그 가운데 심리적으로 대만의 여러 종족은 내부적으로 공동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는 대만 민족이며, 이러한 민족은 다른 민족과 상호 구별된다는 시각이다. 즉 대만 민족주의는 대만 스스로 세운 민족으로서 자주의식을 갖고 있으며, 대만 민족의 이익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하는 민족주의이다.

대만민족주의는 부분적으로 대만에서는 이미 주요한 사회 현상이다. 예를 들어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인식은 점차 중국인으로서 인식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대만 민중의 정체성 조사결과에서 대만이며, 중국인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60.4%, 중국인이며 대만인은 아니라고 한 응답자는 3.5%에 불과하다.⁸⁾ 2011년 조사에는 대만이 조국이라고 한 경우가 89.3%이고, 중국대륙이 조국이라는 응답자가 5.7%이며, 무응답자가 4.9% 였다.⁹⁾ 2014년에 발생한 해바라기 학생운동은 대만민족국가 형성의 징조라고 보는 시각도 나타났다.¹⁰⁾

대만민족주의는 본토화운동의 사상적 원천이다. 중화민족주의에서 차지하는 대만 문화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중화민족주의는 대만문화를 중화문화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반대로 대만민족주의는 중화문화가 대만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 소수 급진적 대만독립운동 지지자들은 대만 문화에서 중화문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만민족주의자들 중 다수는 중화문화를 보존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소중화사상을 이야기 한다. 민진당의 세창팅은 2012년 10월 중국대륙을 방문하여서는“대륙은 중화문화를 찾아보기 힘든 반면, 대만에서 비교적 보존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한 바 있다.¹¹⁾

1) 대만민족주의 종류

① 대만독립식 민족주의 ② 국민당의 관방민족주의 ③ 민진당의 준민족주의

2) 대만민족주의의 특징

- ① 국가정체성에서 대만은 이미 주권독립국가
- ② 대만의 미래문제에서 현상유지 주장이 다수이지만, 최근 추세는 독립지향은 증가추세 반면 통일지향은 감소추세
- ③ 대만인은 곧 대만인이며, 중국인이 아니다.
- ④ 대만은 대만이며, 중국은 중국이다.

3) 대만민족주의의 발흥 원인

① 외국식민통치와 대만정치발전의 특징에 따라 대만지식인과 민중 사이에 현대국가인식상의 민족주의가 배태

8) 台湾民众台湾人/中国人认同趋势分布(1992年06月~2014年12月), 国立政治大学选举研究中心

9) 2011国情调查

10) 太阳花学运周年/吴叡人: 台湾民族国家形成的征兆

11) 谢长廷: 大陆根本没什么中华文化 反而台湾保留的多. 凤凰网. [2012年10月17日]

② 양안의 장기 분단

③ 대만의 비정한 역사 사람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1895년 이후 대만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 경험에 의해 대만사회에서는 대륙에 대한 거리감이 존재, 여기에 리,천 집권기간 민주, 인권, 공투 개념과 뒤섞여 대만 미래는 2,300만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

④ 반중국세력에 대한 서구의 지지

IV.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1. 대만 내부의 입장

1) 정냉경열

2) 통독 논쟁과 대립의 격화

대만에서 통독문제와 국가정체성문제는 종종 정당사이의 정치동원을 일으키는 주요 동력이다. 1980년대 족군과 출신성 사이의 모순이 점차 당외정치운동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반대운동의 점진적 발전, 계엄해제와 민주화의 정치적 효과에 따라, 족군사이의 충돌은 점차 국가정체성문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통일과 독립은 각각 대만사회와 대만의 미래발전을 대표하는 두 개의 노선이 되었다. 통독 족보에서 독립의 역량은 부단히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베이징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벌이는 압력 이외에 대만사회의 독특한 역사발전과정에서 응집되어 나온 자아정체성의식과 더욱 관련이 있다. 세계와는 여러 허상적 주권 외표를 지니며, 그러나 정부는 통치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와 비교해 보면, 대만은 2,300만 인구, 세계17위의 경제력, 민주제도를 구축한 사회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주권독립국가로 볼 수 있다. 현실조건을 보건대 대만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된다는 이상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만국족주의자들은 이미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과거의 강대하나 자유가 없는 조국이 작지만 아름답고 자유개방분위기가 충만한 낙토를 더 선호한다. 이러한 사고는 과거 반공교육시기 대만과 대륙을 민주와 비민주의 간단한 논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대륙은 경제적인 유인 조건 이외에 대만인은 그다지 통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찾지 못한 듯 하다. 상대적으로 대만국족주의가 묘사하는 '동방의 스위스' 전경이 통일 목표보다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다른 측면으로 지난해에 렌잔과 송추위의 방문 이후에 태동한 새로운 대륙 열에서 상당한 선거민이 대만에서 제헌과 정명을 추구하면서 비장하게 중국의 무력위협에 저항한 것 이외에 양안관계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배후에는 최대 지지역량은 수십만명의 대륙에서 발전한 대상(주 중국 대만 경제인)과 대륙경제발전추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중간층 유권자이다. 매년1/4이상의 수출을 대륙시장에 의존하는 대만으로서는 중국시장과 함께하는 것은 이미 양자택일이 아니라, 경제동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국민당과 친민당 등 야당은 교묘하게 양안정치체제의 차이와 하나의 중국 원칙 해석 등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면서, 양안 화해를 '쇄국식 대만독립운동'의 추구로 삼는 것은 당연히 많은 유권자의 지지가 필요하다.

2. 중국의 반응

1) 현상정의: 탈중국화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의 선전책으로 나타난 현상

2) 문화적 대응: 중화민족, 중국 정체성 강조

3) 정치적 대응: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핵심이익임을 천명

대만의 탈중국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독립을 위한 시도라고 하면서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 2012년 12월 10일 타이베이에서 ‘양안 양회’가 개최될 때, 중국의 국무원 대만판공실 부주임 순야푸는 양안은 ‘하나의 중국이다’라고 천명하면서, 중화민국정부가 10여년 동안 해 온 탈중국화 조치들을 비판하였다.¹²⁾ 2014년 9월에는 국가주석 시진핑이 공개석상에서 학교 교육에서 고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교육에서의 탈중국화를 이끈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¹³⁾

1978년 헌법 서문에 처음으로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1982년 헌법에는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이다.”라고 수정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¹⁴⁾

중국은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일국양제’방침이라는 통일방안을 내놓고,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협상을 하였으며, 반환 이후에는 대만과의 통일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만에게는 통일 이후에도 홍콩과 마카오보다 더 큰 자주권을 향유할 것이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 독자적인 군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2005년 3월 14일 개최된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는 양안관계와 관련한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키면서, 양안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적인 규정을 세웠다.

중국학자들은 대체로 대만민족주의가 양국론의 근원이라고 평가하고, 대만민족주의가 양안관계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민족, 대만민족주의 논술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여하한 탈중국화 언행을 반대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제시한 3개 유리 즉 대만인민에게 유리하고, 양안관계에 유리하고, 민족진흥에 유리한 일을 하며, 대륙이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 대응해야 한다.
- ②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대만의 민주정치발전을 지켜보아야 한다.
- ③ 문화적 포용성을 견지하여, 중화민족의 부흥에 복무하는 사상을 지켜야 한다.
- ④ 양안경제무역의 협력 증대 이외에 모든 방법과 통로를 통해 접촉, 왕래, 교류를 넓혀나감으로써 상호 민중의 소통과 이해를 넓혀야 한다.
- ⑤ 대만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증가시켜야 한다.

V. 결론

대만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연구성과는 대체로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점점더 많은 학자들이 국가정체성과 정치민주화 사이의 관련성에 관심을 보이며, 더 나아가 대만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을 보인다. 여러 정치이론학자들은 국가정체성이 한 국가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한다. 인민은 국가토tem에 대한 충성을 보이고, 국가헌정체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민주적기초를 공고히 한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적 사회로 변하는데 핵심적 요소이다. 한국의 경우 과거 수십년간 호남지역(전라도)와 영남지역(경상도)

12) 徐珮君. 台北会谈 红绿互杠两岸认同. (台湾)《苹果日报》. 2012-12-11 [2012-12-11].

13) 习近平反对“去中国化”或是不满江泽民. 大纪元时报. 2014-09-24.

14) 台湾自古就是中国领土. 新华网

사이의 지역충돌(갈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권위주의시기에 정치경제적 자원을 대부분 영남지역출신인사들이 장악함으로써 해소되기가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은 점진적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에 두 지역의 유권자들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국가지도자를 선출했다. 1997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출신이며, 2002년 당선자는 노무현은 영남출신이다. 여기에 민주적 기제가 유권자들이 지역정체성에서 국가정체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족군이 국가정체성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냉전 해체 이후 민주선거를 통해 세르비아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통치권을 가진 이후 다른 민족을 억압, 적대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수십년에 걸친 내전을 치렀다. 이를 볼 때 민주가 허약한 국가의 정체성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학자들의 연구주제는 국가정체성과 양안관계사이의 관련이다. 과거 양안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미국-중국-대만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집중했으며, 특히 미중사이의 군사력의 비교 혹은 대만과 대륙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주였으며, 국내요소는 매우 적었다. 논자들은 대부분 국제체제하의 주권국가사이의 관계를 기점으로 삼고, 결론은 대부분 대만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기존의 강대국 미국, 양 강대국 사이에 다투는 칩(籌碼)이라는 것이다. 대만의 최후 운명은 중국과 미국 양 강대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공방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¹⁵⁾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학자들이 대만의 국가정체성추세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욱 많은 연구가 대만의 본토정체성의 증가가 향후 양안관계 발전의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¹⁶⁾ 이러한 연구 대부분은 대만사회가 점차 증가하는 대만의식(Taiwanese identity)과 독립경향이 대만유권자로 하여금 양안관계의 미래 발전추세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베이징정부도 대만의 날로 강해지는 독립의식에 주의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에는 전국인대에서 '반분열국가법'을 제정하여, 비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한 야당인 국민당 인사들을 대륙을 초청하여, 국공경제무역논단을 개최하고, 대륙관광객의 대만방문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점점더 많은 학자들은 대만민인이 국가정체성과 양안정책사이에 일정한 불일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005년 3월 해기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미 60.2%에 이르며, 그러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33.1%에 그친다. 이 결과는 상당비율의 사람들은 국가정체성이 대만의 최종 미래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주제이다.

마지막으로 실증연구 혹은 역사관찰을 막론하고, 이미 많은 수의 학자들이 대만이 민주화와 본토화를 거친 이후에 새로운 대만국족정체성이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대만이 하나의 독립국종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만의 특수한 역사발전과정과 특수한 구제정치환경이 조성한 '운명공동체' 의식은 이미 상당정도에서 '민남/객가' 혹은 '본성/외성' 등의 전통적인 족군정체성의 구분을 대체하다. 설사 한인을 주체로 하는 대만사회가 100년전에 이미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대만인 의식'의 출현과 형성에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앤더슨의 '상상공동체' 논술은 대만국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며, 최근 서구의 Shelley Rigger · Melissa J

15) Wu, 2000; Campbell and Mitchell, 2001; Lieberthal, 2005

16) Chu, 2004; Wang and Liu, 2004

Brown 등은 대만국족의 출현을 체계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¹⁷⁾ 이들 연구는 대만사회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보탬이 되고 있다.

미래 대만국가정체성 발전궤적은 대체로 한 측면에서 대만 자체의 국족정체성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대만의 신세대주민이 중국에 대한 역사기억이 열리는 추세에 따라, 점점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대만인으로 볼 것이며, 중국인이 아니라고 볼 것이고, 대만의 '운명공동체'의 식의 논술이나 토켄을 강화할 것이고, 공민투표에서 2.28사건기념까지 일정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측면에서는 통독문제가 점차 '중국위협' 및 '중국시장'이라는 논술방식으로 전환하고 존재할 것이다. 이 가운데 '중국위협'론의 기초는 중국의 미래발전에 대한 불확실성과 신뢰부재이다. 따라서 대만정체성이 완전한 정치적독립을 취득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시장론은 경제의 글로벌화를 출발점으로 하여, 만일 대만이 계속 대륙시장의 외곽에 존재한다면, 발전자원을 대만 이외 국가에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대만이 더욱 빠르게 주변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만국족정체성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대만과 중국사이의 모호한 정치, 경제관계와 국제상의 대만의 지위를 보면, 미래는 여전히 대만사회가 미래발전의 역량과 관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의 분단과 단절은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분리가 오히려 강화되는 현상을 만들고 있다. 물론 혈연적 동질성이나 민족정체성이 전혀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중요성은 이전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적 동질성에 기초한 민족정체성보다 대만인이라는 국가정체성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민족정체성과 분리된 국가정체성의 강화추세가 발견되고 있다.

참고문헌

- 지은주,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재편성, 나남, 2009
-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동아시아학술원.
- 김성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인민 형성과 민족 정체성, 연세대
- 박병석, 탈중화(脫中華) 민족형성 사례 연구-대만민족 형성의 정당성, 경로 및 한계, 정치사상 연구, 한국정치사상학회, 20권 2호, 2014.11, 65~96
- 허석재(SukJaeHur), 김진용(JinYongKim), 정체성 정치의 변화와 지속- 대만 천수이볜 시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66권 0호, 2014 pp.169-202
- 吳乃德, 2002, <認同衝突和政治信任: 現階段台灣族群政治的核心難題>, 《台灣社會學》, 第4卷, 頁75-118
- 劉阿榮, 族群記憶與國家認同, 2010, 元智大學
- 潘俊鐘, 台灣民眾統獨態度之研究--1994-2002年之分析比較, 第四章 台灣民眾族群認同、國家認同與統獨態度
- 陳牧民, 台灣國家認同研究的現況與展望 - 台灣國際研究學會
- 施正鋒, 台灣人的民族-國家認同 - 淡江大學 200403
- 蔣為文, 語言、認同與去殖民, 台南 國立成功大學, 2005
- 李世達, 國立台灣師範大學大眾傳播研究所, 台灣化與去中國化 - 高中歷史教材中台灣史書寫的

17) Rigger, 1999/2000, Brown, 2006

批判話語分析，2000年

刘凌斌, 两岸大交流背景下台湾青年的“国家认同”研究, 台湾研究, 2014年05期

周少来, 台湾民众的国家认同倾向及对两岸政策的影响, 江苏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4年02期

高杨, 国家认同, 国民党应明确“两岸一中”, 人民政协报, 2014-04-26

刘红, 台独误导“国家认同”的阶段、要点简述,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12年01期

李文艺, 周丽华, 台湾社会“统独”意识消长成因及发展新态势 台湾研究 2011年02期

钟新 台湾统派团体再度举办“一国两制”演讲会 台声 2015年03期

田子渝, 台湾民族主义与中华民族主义, 学习与实践, 2007年08期

沈惠平, 当代“台湾民族主义”浅析, 贵州民族研究, 2009年05期

李家泉, 台湾历史上的三次“去中国化”活动, 两岸关系, 2002年10期

覃永昭, “去中国化”正在冲击台海现状, 统一论坛, 2007年02期

耿银平, 去中国化别成了“文化难民” 中国青年 2014年20期

高秉涵, “去中国化”重伤台湾, 菏泽学院学报, 2006年06期

王岳川, 从去中国化到再中国化, 文艺争鸣, 2009年01期

陈孔立, 台湾“去中国化”的文化动向, 台湾研究集刊, 2001年03期

Lowell Dittmer, Taiwan and the Issue of National Identity, Asian Survey Vol. 44, No. 4 July/August 2004, pp. 475-483

Gunter Schubert and Jeans Dmm, Taiwanese Ident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 Domestic, regional and global perspectives, Rotledge Research on Taiwan

Martin Boyle, Who, When and Why is Taiwan A Neoclassical Realist - Constructivist Approach to cross-Strait Relations